

산업보고: 2006년 영화산업 현황 분석

2007-09-11 중국영화망

2006년 중국 영화산업은 전체적으로 발전 추세를 보여주었다. 우선, 투자 주체가 더욱 다양화되고 국유영화 투자 주체는 시스템 혁신을 거쳐 거대한 유형 및 무형 자산으로 사회 자본과 해외 자본의 합작을 달성하였으며, 영화제작 투자도 크게 강화 되었다. 현재 중국영화그룹과 여러 기업이 합작하고 오우삼(吳宇森)이 감독을 맡은 영화<격벽(赤壁)>이 제작 중이며 성룡과 이연걸이 공동 주연한 <미후왕(美猴王)>, 현재 촬영 중인 주성치 영화 <장강칠호>, 진가신(陳可辛) 감독의 <척마(刺馬)>등 상업 블록버스터들이 모두 중국 영화그룹과 관련되어 있다. 화이브라더스, 신화면영업이 투자해 제작한 몇 개의 중국 국산 대작들은 자신만만하게 상업 대작 제작에 뛰어들어 이미 중국 영화제작업의 리더가 되었다. 이들은 2006년 말, 국내 극장체인망들이 연간 티켓 판매수입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주동적으로 신화면영업에 <황후화>를 사전 상영할 것을 요구해 <황후화>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민영 영상기업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화이브라더스가 2007년에 개봉하게 될 상업 블록버스터<집결호(集结号)>의 티켓 판매 수입은 1.8억 위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주류 극장체인망을 통해 상영되는 영화들이 다양화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황후화>, <야연>과 같은 상업 대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요(云水瑤)>, <동경심판>, <나의 장정>등 중등 투자 규모의 영화도 있으며, 또 <크레이지 스톤>, <삼협호인>과 같은 낮은 원가의 영화도 있다. <천구(天狗)>와 같은 종류의 영화들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가 급증가 하고 있으며 창작 수준 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상성, 예술성을 구비한 우수한 작품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티켓 판매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극장 체인망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극장 건설도 힘차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 잠재력도 뚜렷해지고 있다.

투자 구조의 다양화

상업 블록버스터들은 높은 투자와 위험성을 갖게 된다. 4년간 노력을 거쳐 중국 국유 영화투자 주체와 민영 투자 주체 모두가 "다원화 투자 구조와 루트 회수 모델"을 사용하여 국산 영화를 운영하게 되었다. <황후화>, <야연>, <BB프로젝트>, <묵공>, <상청> 및 현재 제작 중인 <격벽(赤壁)>은 모두 공동 합작 투자 방식을 채용했으며 자금 회수와 영리도 다 루트 방식을 취했다. 화이브라더스와 북경 신화면이 제일 먼저 루트 방식을 시도하였으며 산업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합작 모델의 리드로 중·저 원가의 영화들도 속속 합작모델을 채용해 <크레

이지스톤>, <삼협호인>은 투자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도 합작방식을 채용했다. 가장 현저한 변화라면 발행 업체들이 사전에 합작에 참여 하였다는 것이다.

한차례 새로운 극장체인망의 확장이 극장 건설을 자극하게 될 것

2002년에 극장체인망 제도를 실시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성·시·급 발행 방영업체를 개조하여 각 극장체인망 산하의 극장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극장 체인망 발전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극장 체인망은 재구성 또는 새 시장 개척 계획을 시도해 새로운 극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극장 체인망은 각 지방과 도시에 새로운 극장 건설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으며, 경제적 수단으로 지역 독점의 폐단을 해결했다. 극장 건설에서 부동산업이 큰 힘을 발휘하여 대련만달그룹과 광주 진이공사를 대표로 한 부동산업체들이 각 도시에 현대화된 극장을 건설했다.

중국 블록버스터, 산업 발전 이끌고 나가

2006년 중국 국산 블록버스터들이 계속 수입 영화에 맞서 중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2005년 신년축하기간에 상영한 <무극>과 <야연> 그리고 올해 신년축하기간에 상영된 <황후화>는 티켓 판매수입이 수입 영화를 웛싼 초과해 중국 영화산업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와 같은 대작들은 언론 매체의 비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중국 영화제작자들의 상업화로의 전환은 중국 영화산업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저 원가 영화 시장 진출

2006년 중국 영화산업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중저 원가 영화들이 주류 영화 극장체인망에서 상영되어 눈에 띠는 성과를 취득한 것이다. 영화생산과 시장 방영 사이에는 늘 구조적 모순이 존재했다. 대부분의 영화가 중저 원가 영화였는데 극장체인망에서 상영되기 힘들거나 티켓 판매 수익이 낮아 극장에서 계속 방영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 <대도여천(大道如天)>등 영화의 티켓 판매수입이 천만위안을 돌파했으며 <운수요>의 티켓 판매수입은 3600만 위안, <동경심판>은 2800만 위안, <크레이지 스톤>은 더욱 놀랄만한 성과를 취득했다. 그밖에 <천구>의 티켓 판매수입은 680만 위안이었으며 기타 중저 원가 영화들은 극장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상을 받아 좋은 사회적 반응을 얻었다.

중국은 매년 대량의 중저 원가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들이 시장성

을 보여야 중국 영화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영화와 디지털 극장 발전이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은 중국의 디지털 영화(디지털 극장체인망 포함)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해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디지털 극장이 가장 많은 영화 시장이 되었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2006년 중국 영화산업과 티켓 판매수입은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되어 투자 업체들이 극장건설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이 안정된 성장 속에도 일부 불안정한 요소들이 짹트고 있다. 예를 들면, 상업 블록버스터와 중저 원가 영화간의 모순, 국유 영화기업과 민영 영화기업 발전의 불균형성, 상업 블록버스터들의 소재의 단일함과 다양한 소재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 특히 언론매체와 상업 블록버스터들 간의 충돌이 있다. 중국 영화가협회 산업연구센터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둘러싸고 조사 분석을 거쳐 산업보고를 작성해 업계 전문가들이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